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는 서로
남의 발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제1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드러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물들어 우리의 마음까지 어수선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분심을 가라앉혀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명료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현절을 지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새겨 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일상은 너무나 버겁고 내일의 전망은 어둡기만 해서 영혼이 새카맣게 타버린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사하신 생명의 빛 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 31:11,13 인도자
- ▲ 교 독 문 51. 시편 118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130. 찬란한 주의 영광은 다 함께
- ▲ 성경봉독 행 5:12-16 1부:인도자/2부:정현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특 송	하늘의 아버지	청파찬양대중창
말 씀	감화의 그림자	김기석 목사
거둠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216. 성자의 귀한 몸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죽음의 땅을 갈아엎었던 이들처럼, 혼탁한 세상에 하늘의 빛을 비추는 새 생명의 일꾼이 되십시오.


다 합 께 :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답게 우리의 일상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채우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곽권희	류건형	이범석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